1991年 5月 111

朝鮮時代의 布帛尺에 관한 硏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과정 李 恩 卿

目 次

Ⅰ. 序 言
Ⅱ. 布帛尺의 定義 및 發達
Ⅲ. 朝鮮時代 尺度의 種類
Ⅳ. 朝鮮時代의 布帛尺
Ⅴ. 遺物의 種類 및 文樣
Ⅵ. 結 言
參考文獻

Ⅰ. 序 言

의복을 짓기 위해 각종 布帛을 測量할 때는 尺度가 기본이 된다. 따라서 文獻과 遺物을 통한 朝鮮時代의 布帛尺에 관한 硏究는 우리 의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본요소라고 생각한다.

布帛尺이란 廣義로서는 의복을 裁斷하거나 각종 布帛을 測量할 때 사용 하는 자(尺)을 말하며, 狹義로는 商人들이 布帛을 測量할 때 사용하는 商業用尺의 의미만을 지니게 되어 家庭에서 裁縫에 사용하는 針尺과는 구별이 된다.

本稿에서는 針尺, 鯨尺, 布尺, 裁尺, 綿紬尺, 苧布尺 등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布帛尺度의 起原과 歷史的 變遷을 朝鮮時代 中心으로 살펴보고, 時代別로 國家에서 채택하였던 布帛尺 一尺의 길이를 밝히고자 한다.

물론 朝鮮時代 이전에도 布帛尺의 사용이 있었겠지만, 전해오는 實物과 記錄이 없어 길이를 알 수 없다.

朝鮮初期에는 各 分野에서 專用의 자(尺)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黃鍾尺 등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칫수가 糾明되어야만이 布帛尺의 길이를 알 수 있어 간략하게 살펴보고, 世宗 13年부터 光武 6年까지는 다행히도 布帛尺에 관한 記錄이 있어 文獻中心으로 변화된 길이를 정리하였다.

또한 朝鮮末期 이후의 것으로 추측되는 遺物들을 창덕궁, 民俗博物館, 大學博物館, 骨董品商 등을 중심으로 總 117점을 實測調査하였는데 대부분 製作年代를 알 수 없었으며 버선자, 무명을 재는 자, 비단을 재는 자, 壽衣를 재는 자 등에 따라 길이가 다르고, 눈금사이가 부정확해서 時代的 구분이 어려워, 자(尺)의 材料와 技工에 따라 華角尺, 漆尺, 竹尺, 木製尺 등으로 분류하였다.

Ⅱ. 布帛尺의 定義 및 發達

1. 布帛尺의 뜻

文獻에 나타난 布帛尺과 유사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는 針尺, 綿紬尺, 苧布尺, 布尺, 鯨尺, 裁尺 등이 있다.

廣義로서의 布帛尺이란, 衣服을 裁斷하거나 각종 布帛을 測量할 때 사용하는 자(尺)를 말하며,[1] 이것은 여러 종류로 長短이 있어 曲尺으로 一尺四寸六

1) 「六典條例」 戶曹 參照(서울 : 法制處 : 影印本) p. 74.
「典錄通考」 戶曹 參照(서울 : 法制處 : 影印本), p. 540.
「大漢韓사전」(1972), 省音社.

分 혹은 一尺六寸一分 등 尺마다 差異가 있다[2]고 했고, 尹張燮은「韓國의 營造尺度」에서 "布帛尺은 裁縫用으로 中國에서는 俗稱 裁尺이라고도 한다. 이는 民間에 通用되는 것이어서 法定尺이 아니므로 時代와 地方에 따라 길이의 增減이 많았으므로 根據가 不確實하고 紊亂하여 長短의 差異가 많다[3]"라고 하여, 尺度하는 옷감의 종류와 사용되는 場所와 用途에 관계없이 모두 布帛尺이라 일컫고 있다.

한편 狹義로 쓰여진 것은 "布帛尺이란 布木에 사용되는 尺으로 一尺六寸一分에 해당하며, 針尺은 裁縫에 사용되는 尺으로 鯨尺과 같고 曲尺 一尺六寸六分과 同一하며 이 尺은 家庭用으로 私尺에 지나지 않는다."[4]라고 있어 布帛尺은 商人들이 布帛을 測量할 때 사용하는 商業用尺인 반면, 針尺은 家庭에서 裁縫할 때 사용하는 私尺으로 用途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2. 布帛尺의 起原

柳子厚는「朝鮮貨幣考」에서 "자(尺)는 우리 東方文獻에서 그 起原을 찾아보면, 大東歷史 文武王 元年(周穆王 二年 紀元前 一千年)에 定律 度量衡이라는 記錄이 最古의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創始함이라 記錄되어 있지 않으니 이 때에는 度量衡을 在來의 東方式과 中國式을 較取更制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단정을 내릴 수는 없으나 尺의 起原을 檀君聖帝 時代로부터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5]고 하여 尺의 起原을 檀君부터 잡았고, 또한 우리 東方에서는 布帛麻, 布綿 등을 幣로 사용한 것이 인연이 되어 稅納에 있어서 布帛 등을 尺度하여 現代의 稅金과 같이 徵收한데서 布帛尺 또는 針尺이 發端되었다고 했다.[6]

3. 尺度의 單位

尺度의 單位란 항상 손쉽게 利用할 수 있고, 認定되고 變化가 적으며, 表現이 직접적이어야 되므로 사람의 指長, 肘長, 足長 및 身長 등으로 尺度의 比較體系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도 人體를 利用한 尺度가 사용되었다고 추측되는데, 한뼘(手長), 한길(身長), 한팔(肘長), 한바알(寸長) 등이 지금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7]

따라서 저고리 깃고대는 엄지부터 中指를 벌린 길이이고, 一寸은 中指의 一節, 一尺은 겨드랑이에서부터 中指의 끝까지였다.

指尺이란 深衣의 制度를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길게도, 짧게도, 넓게도, 좁게도 하는 칫수로 마련한 까닭에 생긴 말이며 中指의 가운데 마디를 1寸으로 잡고 만든 자(尺)의 이름이다.[8]

4. 布帛尺의 導入 經路

中國에서 尺度의 制度가 初步的인 完備를 보게된 秦·漢時代이며, 最初로 整備된 中國의 度量衡制度는「史記律書」와「漢書律歷志」에 記錄되어 있다. 吳洛의「中國度量衡史」을 보면, 尺度의 基準은 自然物인 矩黍穀粒과 人爲的인 音律管에 關係를 갖게한 黃鍾累黍之法에 依한 黃鍾之長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歷代 度量衡制度의 基本이 되었다.[9]

우리나라의 統一新羅時代에는 唐文化의 영향을 받아 韓國과 日本에서 唐尺이 사용되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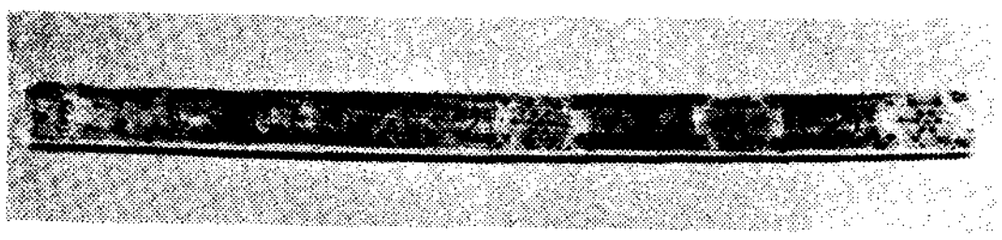
唐尺에 對한 기록을 보면, "唐小尺은 北周와 隋時代에 사용된 鐵尺과 같은 것이었으며, 單位길이는 24.566cm였고, 大尺은 小尺의 一尺二寸이어서 29.576cm였다"고 考證[11]하고 있다.

日本奈良法隆寺寶物로 傳해오는 唐尺으로 紅牙撥鏤尺이 있는데 象牙製로써 表面에 水花鳥文樣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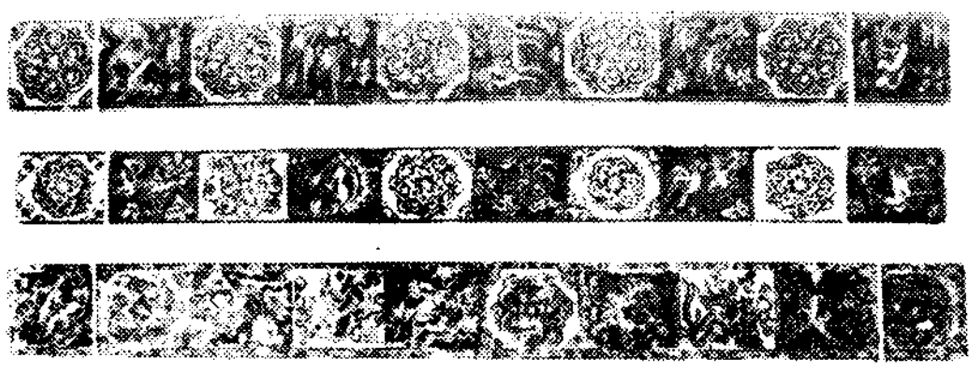
2) 朝鮮總督府中樞院(編),「朝鮮民族史」.
3) 尹張燮(1975), "韓國의 營造尺度"「大韓建築學會誌」19卷 63號, p. 5.
4)「朝鮮舊社會事情」(1929), 京城：朝鮮總督府 p. 200.
5) 柳子厚(1940),「朝鮮貨幣考」京城：學藝社, pp. 480~481.
6) 앞글, p. 485.
7) 尹張燮(1975), p. 3.
8) 李圭景(1959),「五洲衍文長箋散稿」卷49, 指尺辯證說(서울：東國文化社), p. 180.
9) 吳洛(1976),「中國度量衡史」, 대만：商務印書館, p. 130.
10) 尹張燮(1975), p. 3.
11) 楊　寬,「中國歷代尺度考」, p. 100.

刻하여 있고 길이는 29.6cm이며 幅은 2cm이다 (圖 1).



〈圖 1〉 日本奈良法隆寺의 唐大尺
(法隆寺獻納寶物圖錄)

일본 正倉院에 있는 26個의 唐尺들은 그 길이마다 微小한 差가 있으나 29.694cm로 考證[12]되고 있다. 圖 2는 이 遺物 중의 일부인데, 꽃과 사슴과 새를 엇섞어서 사용한 技法은 精巧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圖 2〉 日本正倉院의 唐尺
(世界美術全集 八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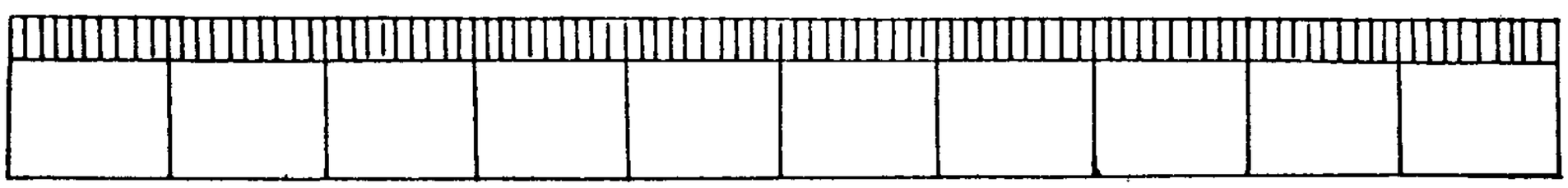
朱載堉의 記錄에 依하면 "唐은 隋制에 따랐으며, 宋도 역시 唐制를 따랐고, 明역시 唐·宋制를 따랐다. 고로 唐·宋·明 三代의 尺度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하였다.[13]

우리 나라도 高麗時代 初期에는 모든 制度가 統一新羅의 것을 繼承하였으므로 唐尺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며, 朝鮮時代 正祖 2年에 編纂된 北學議에 "우리 나라에서 布帛에 사용하는 자(尺)는 中國의 큰 자(尺)와 흡사하니, 中國에서 일상 쓰는 작은 자(尺)는 우리의 자(尺)보다 四分 程度 짧다.[14]고 있어, 여기서의 '큰자'는 唐大尺을, '작은자'는 唐小尺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唐尺의 영향이 朝鮮時代까지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宋時代에는 度量衡을 모두 太府에서 주관하였는데, 尺度는 布帛徵收用으로 사용되었던 까닭에 太府布帛尺 또는 三司布帛尺이라 稱하였으며 單位 길이는 31.1~31.4cm가 標準이었음이 考證[15]되었다. 그러나 吳洛의 '中國度量衡史'에 있는 宋三司布帛尺의 實寸圖(圖 3)를 正確한 자(尺)로 재어 본 결과 26.5cm로 記錄과 많은 差異가 있어 신뢰성이 적었다.

Ⅲ. 朝鮮時代 尺度의 種類

朝鮮時代에는 布帛尺, 周尺, 黃鍾尺, 營造尺, 造禮器尺 등이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布帛尺의 길이를 찾아 내려면 諸尺度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하므로 간단히 살펴본다.



〈½ 축도〉

〈圖 3〉 宋三司 布帛尺(中國度量衡史)

1. 周 尺

周尺이란 中國 周代의 尺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12) 藤田元春(1929),「尺度綜考」, 東京 : 刀江書院, pp. 46~48.
13) 吳　洛(1976), p. 229.
14) 朴齊家(1971),「北學義」, 李翼成(譯) 서울 : 乙酉文化社, p. 151.
我國布帛尺, 與中國大尺正同, 知出於此也, 恒用小尺, 短於我尺幾四分弱, 黃種尺見下圖.
15) 王國維, "宋三司布帛尺摸本跋"「中國古尺集說」(東京 : 綜藝舍, 1969), p. 67.

옛부터 중요한 機具에는 반드시 이것을 사용했으며 특히 土地의 丈量과 里程 등의 距離를 測定할 때 사용되었다. 量田尺 또는 里程尺으로 사용된 周尺은 布帛尺과 營造尺보다는 짧았으며 때와 場所와 事物이 다르므로 길이를 調査 確定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2. 黃鍾尺

黃鍾이란 古代 音律의 基本樂器를 말하며 黃鍾管의 길이를 尺度의 基準으로 한 것을 黃鍾尺이라 한다. 黃鍾累黍之法에 依하여 九十分을 黃鍾之長 즉 黃鍾律管長으로 하고 百分 즉 十寸을 黃鍾尺 一尺으로 하는 것으로 時代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16]

3. 營造尺

營造尺은 樂器의 製造와 建築, 造船, 造車 등 주로 官家에서 쓰던 자(尺)로 建築할 때 많이 이용되어 木尺이라고도 하였다. 木手가 쓰는 것도 이 營造尺이고, 방의 넓이를 나타내는 間數도 이 자(尺)를 基本으로 한 것이다(營造尺으로 八尺 사방을 一間으로 한다). 이것은 地方에 따라 2~3分쯤 차이가 나서 淸州木尺이니 普州木尺이니 地名을 붙여 그 장단을 표시했다.

4. 造禮器尺

禮器는 각종의 祭器를 말하며, 祭器를 製作할 때 사용하던 자(尺)를 禮器尺 또는 造禮器尺이라 한다.[18]

그러나 이 造禮器尺은 朝鮮末期 이후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Ⅳ. 朝鮮時代의 布帛尺

1. 朝鮮初期의 布帛尺

度量衡에 관한 記錄은 "新羅時代에는 周尺이 使用되었으나, 高麗時代에는 周尺과 高麗尺, 布帛尺, 量田尺 等이 使用된것 같고……"[19]라고 되어 있어 三國時代로 溯及되어야만 기본을 찾게 되며, 高麗時代 역시 不明瞭한 점이 많아 朝鮮 世宗 代에 諸尺度 關係가 整備되기까지 度量衡史는 추측 뿐, 實際길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世宗이 紊亂했던 度量衡制度를 統一했을 때, 尺度의 標準은 가장 正確한 것을 取하기 爲하여 中國의 標準尺度와 音樂의 標準尺인 黃鍾尺을 正確히 再現시켰다.

增補文獻備考에 "世宗 七年(1425年)에 朴堧이 海州産 秬黍을 사용하여 黃鍾累黍之法에 따라서 黃鍾之長을 考正하여 黃鍾律管을 만들고 이 音律管이 내는 소리로 國樂의 基本音을 定하였다."[20]고 있다.

中國의 度量衡史가 周尺과 黃鍾律管에 기원을 둔 律尺에서 시작되었듯이 朝鮮時代도 周尺과 黃鍾尺이 基本이 되어 尺度가 制定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布帛尺의 길이를 알 수 있다.

世宗 13年 "各 고을의 布帛尺의 尺度는 일찌기 바르게 校正치 않았기 때문에 京外의 尺度가 서로 길고 짧으니 청컨대, 京市署로 하여금 그 市의 標準尺度에 準하여 바로잡아 還送케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21]는 記錄으로 前부터 사용해 오던 여러 길이의 布帛尺을 朝鮮時代에 처음으로 校正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同書 五禮 幣帛欄에 "무릇 幣帛制度는 모두

---

16) 朴興秀(1967), "周·秦·漢 時代의 中國 量制와 量尺에 관하여"「閔泰植 박사 古稀紀念 儒敎學 논총」, p. 226.

17) 法制處(編)(1973),「六典條例」卷3 度量衡條, p. 74.
李圭泰(1973), p. 390 ;「萬機要覽」재용편, p.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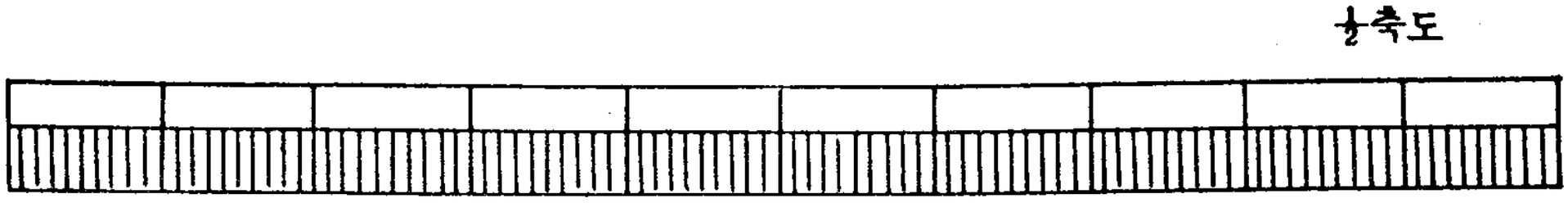
18) 六典條例(1973), 度量衡條, p. 74.

19) 朴興秀(1972a), p. 200.

20)「增補文獻備考」卷90 樂考 2張.

21)「世宗實錄」世宗 13년 4月 卷52 5張.

길이가 1丈 8尺이며 모두 苧布를 사용한다. 이때 자(尺)는 造禮器尺을 사용하는데 이 자(尺)는 지금 官府의 布帛尺에 準하면 6寸 4分이 되어 布帛尺 1尺에서 3寸 6分을 減한다. 고로 1丈 8尺은 지금의 布帛尺 11尺 5寸 2分에 該當된다."[22]고 있은 즉, 造禮器尺은 당시 官府의 布帛尺으로 6寸 4分이 된다. 圖 4는 五禮 첫머리에 그려진 新制造禮器尺의 實寸圖인데 正確한 자(尺)로 재어본 길이는 28.6cm이다.



〈圖 4〉 新制 造禮器尺度 (世宗實錄 卷128 五禮吉禮字例)

이로써 布帛尺의 길이를 計算하면, (28.6cm×$\frac{1}{0.64}$=44.75cm) 44.75cm가 된다.

그런데 世宗 13年(1431年), 田制詳定所에서 黃鍾尺,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布帛尺 등의 度器를 만들었을 때[23] 田制詳定所 遵守册에 記錄된 布帛尺의 길이는 46.73cm로써 五禮儀의 布帛尺 길이보다 1.98cm가 더 길다.

이렇게 布帛尺의 길이가 두 종류가 생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五禮儀의 布帛尺과 田制詳定所 遵守册에 記錄된 布帛尺을 世宗代의 諸尺度로 본다.

이때 新制된 各 尺度 사이의 換算平均値는 表 1과 같다.

〈表 1〉 世宗代 諸尺度 사이의 換算平均値

基準尺 / 關係尺	黃種尺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布帛尺 (五禮)	布帛尺 (田制詳定所)
黃種尺	1.0000	1.6686	1.1115	1.2126	0.7758	0.7429
周尺	0.5993	1.0000	0.6661	0.7267	0.4649	0.4453
營造尺	0.8997	1.5012	1.0000	1.0909	0.6979	0.6685
造禮器尺	0.8250	1.3761	0.9167	1.0000	0.6400	0,6130
布帛尺 (五禮)	1.2890	2.1509	1.4327	1.5625	1.0000	0.9577
布帛尺 (田制詳定所)	1.3460	2.2459	1.4960	1.6315	1.0442	1.0000

朴興秀(註 19참조)는 世宗 당시의 遺物을 實測分析하여 黃鍾尺의 正確한 길이는34.72cm라 했는데, 이 數値를 기준으로 布帛尺의 칫수를 換算하면 表 2와 같다.

즉 黃鍾尺 1尺 길이인 34.72cm를 基準으로 五禮布帛尺을 換算하면, 44.75cm(34.72cm×$\frac{1.289}{1}$=44.75cm)가 되는데, 이는 五禮儀 幣帛欄에 그려진 新制造禮器尺의 길이 28.6cm를 가지고 換算한 것(28.6cm×$\frac{1}{0.64}$=44.75cm)과 同一함을 알 수 있어 世宗代 五禮 布帛尺의 길이는 44.75cm였음을 알 수 있다.

圖 5는 世宗 13年에 考正된 구리로 만든 布帛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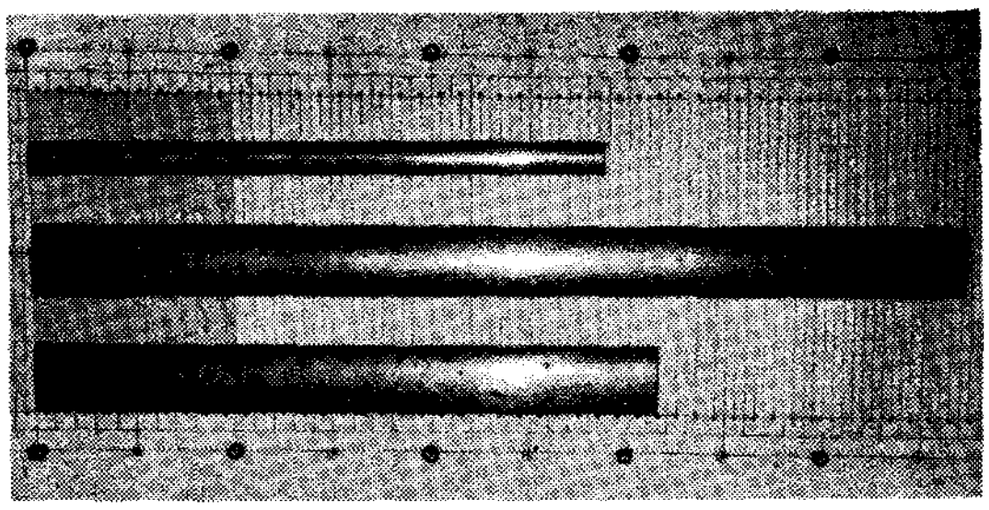
22) 「世宗實錄」 卷128 4張 "弊帛"

23) 李弘稙(1972), 「國史大事典」 Ⅱ卷 서울 : 百萬社, p. 410.

〈表 2〉黃鍾尺 基準에 依한 世宗代의 諸 標準尺의 길이

單位 / 尺의 種類	一尺길이	
	單位(黃鍾尺)	單位(cm)
黃鍾尺	1.0000	34.72
周尺	0.5993	20.81
營造尺	0.8997	31.24
造禮器尺	0.8250	28.64
布帛尺(五禮)	1.2890	44.75
布帛尺(田制詳定所)	1.3460	46.73

으로「世宗大王 紀念館에서 1973年에 原形대로 複製한 것인데 길이는 46.73cm, 폭은 3.6cm, 두께 0.4cm이고, 단면은 半圓形(◠)으로 되어 있다.



〈圖 5〉 造禮器尺(上) 布帛尺(中) 營造尺(下)의 比較
(世宗大王 紀念館 소장)

睿宗 元年(1469年)의 經國大典 工典에 度之制는 十釐爲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이며, 布帛尺을 黃鍾尺에 準하면 1尺 3寸 4分 8釐라고 되어 있다.[24]

經國大典의 記錄과 世宗 때의 尺度를 比較해보면 表 3에서와 같이 黃鍾尺, 造禮器尺, 營造尺, 周尺 등은 거의 一致하고 있으나 五禮 布帛尺은 約6分 程度의 큰 차이를 보이고, 田制詳定所 布帛尺과는 2釐의 차이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成宗 때 布帛尺의 길이는 1尺 3寸 4分 8釐 즉 46.80cm로 世宗 때 校正된 布帛尺이 계속 사용되었다고 본다.

2. 朝鮮中·後期의 布帛尺

經國大典 이후 約 270여년간은 尺度에 관한 記錄은 보이지 않는다.

宣祖代에는 兵亂으로 度制가 紊亂해지는데 世宗代에 銅鑄한 諸尺의 標準은 전부 분실되고, 江原道 三陟府에만 布帛尺이 남아 있었는데, 秋毫와 같은 細細한 금까지 넣었으며, 그 背面에는 "正統 11年 12月 新造 布帛尺"이라 刻名되어 있어 世宗 28年(明·正統 11年)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25] 이 三陟布帛尺의 길이는 46,73cm로 田制詳定所 布帛尺이 분명하며,[26] 顯宗朝의 磻溪隨錄 卷二田制下 附錄에 實寸圖가 提示되어 있고, "今ㅅ私所用

〈表 3〉 經國大典 記錄과의 對照表

基準尺 / 對照項 / 關係尺	黃鍾尺基準(34.72cm)				差異	
	世宗代	度量衡值	經國大典	度量衡值		
	單位(尺)	單位(cm)	單位(尺)	單位(cm)	單位(尺)	單位(cm)
周尺	0.5993	20.81	0.6060	21.04	−0.0067	−0.23
營造尺	0.8997	31.24	0.8990	31.21	+0.0007	+0.03
造禮器尺	0.8250	28.64	0.8230	28.57	+0.0020	+0.07
布帛尺(五禮)	1.2890	44.75	1.3480	46.80	−0.0590	−2.05
布帛尺(田制詳定所)	1.3460	46.73			−0.0020	−0.07

24) 「經國大典」 卷之六 工典 度量衡條, p. 565.
「國朝五禮儀」 序例 卷一, p. 412.

25) 李肯翊(1967), 「燃藜室記述」 別集 第13卷 政教典故 서울 : 景仁文化社, p. 332.
「朝鮮舊社會事情」(1929), p. 199 ; 「增補文獻備考」 卷91 樂考 3張 度量衡.

26) 朴興秀(1967a), p. 204.

布帛尺 較此更加 七分強"이란 記錄이 있어,[27] 당시 公私間에 사용하던 布帛尺의 길이는 49.16cm 이상으로(1尺 3寸 4分 6釐+7分=1尺 4寸 1分 6釐)(46.73cm×$\frac{1.416}{1.346}$=49.16cm) 三陟布帛尺에 비해 七分이 더 길다.

그후 英祖 26年(1750年) 三陟布帛尺을 經國大典에 依據하여 世宗代의 것으로 再現하였다.[28]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世宗代 三陟布帛尺 46.73cm와 經國大典 記錄 46.80cm 중 어느 尺度를 취했는가 하는 점인데, 이는 成宗代이후부터 朝鮮時代까지 編纂된 여러冊의 記錄이 모두 經國大典 記錄과 同一한 점으로 보아 46.80cm로 재정비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후 僻地에서는 在來의 不確實한 尺度를 계속 사용하므로, 正祖 元年(1776年)에 教를 내려 尺度의 統一을 宣布했다.[29]

純祖代에도 尺의 釐正은 있었으나 布帛尺에 관한 項目은 없고, 단지 純祖 9年(1809年)에 編纂된 萬機要覽 軍政篇에[30] 무명과 삼베 一匹은 모두 40자(尺)라는 記錄이 나와 있다.

憲宗 10年에 編纂된 四禮便覽에[31] 布帛尺의 實測圖가 있는데 그 길이는 45.2cm로 짧다. 正確한 實測圖라고 전제하면, 당시의 布帛尺 중 短尺이라 생각되며 英祖代 考正된 것이 이 때에 다시 改正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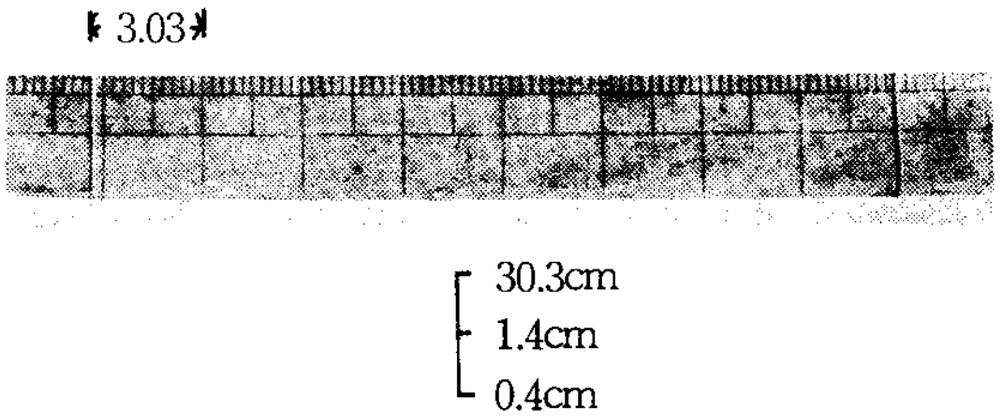
그후 光武 6年(1902年) 度制의 改正이 있기까지 별다른 記錄이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經國大典의 "布帛尺을 黃鍾尺에 準하면 1尺 3寸 4分 8釐가 된다."는 즉, 46.80cm의 布帛尺 길이가 成宗 5년(1471年)의 國朝五禮儀, 肅宗 27年(1701年)의 典錄通考, 英祖 22年(1746年) 續 大典, 45年(1769年) 增補된 磻溪隨錄, 正祖元年(1785年)의 大典通編, 純祖 9年(1809年)의 萬機要覽, 高宗 때의 大韓禮典, 六典條例 등에 同一하게 기록되어 있어 成宗과 高宗間의 約 430여년간 布帛尺의 길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開化期 以後의 布帛尺

朝鮮末期에는 周尺, 營造尺, 針尺, 布帛尺이 通用되었고, 같은 종류의 자(尺)라도 차이가 있는 자(尺)들이 混用되었다.

光武 6年(1902年) 平式院을 세우고 度量衡法을 改正했으며, 光武 9年 度量衡法을 宣布하여 近代的인 整備가 이루어졌다.[32]

度量衡器를 白金으로 만들어 攝氏 温度計의 눈금을 새겼고, 15°C의 길이를 10/33尺으로 하여 1m의 10/33인 30.3cm를 單位길이로 하는 曲尺을 基準으로 定했다. 現在 高大博物館에는 당시에 사용하던 曲尺이 여러점 所藏되어 있다(圖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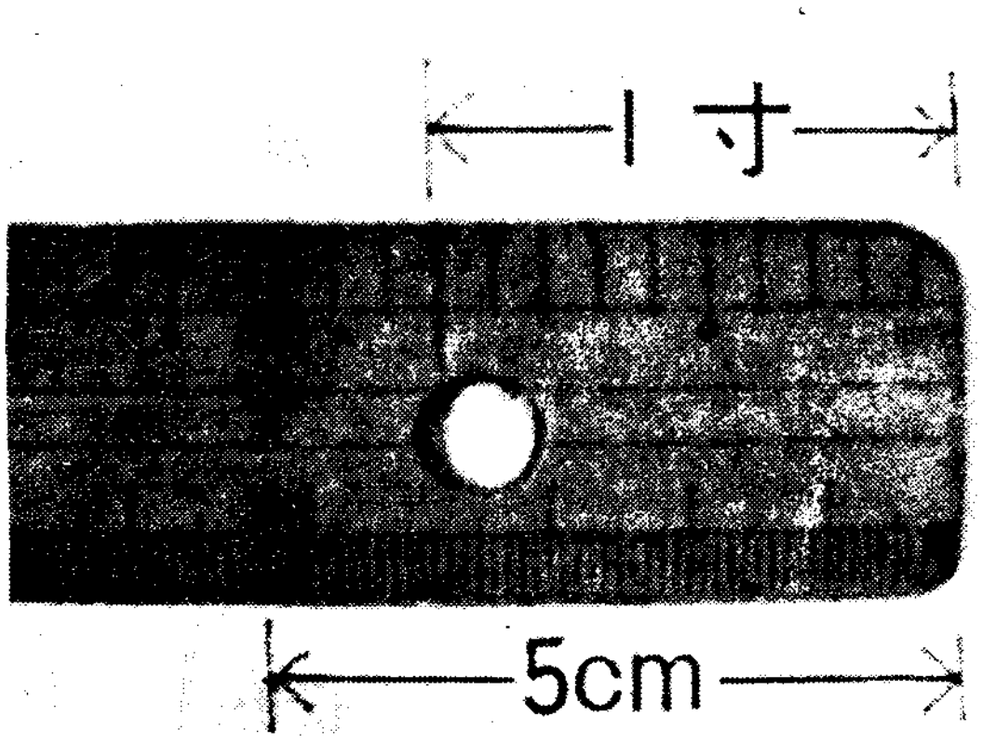
〈圖 6〉 曲尺(高大 博物館 所藏)

布帛을 度할 時에는 從來慣用하던 布帛尺을 並用하되 基長을 1尺 6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名稱位를 制定하였다.[33] 分은 布帛尺의 1/100, 寸은 布帛尺의 1/10, 布帛尺은 1尺 6寸, 丈은 10布帛尺, 따라서 改正時 布帛尺의 길이를 曲尺으로 計算하면 48.48cm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尺度의 基準이 되어 왔던 黃鍾尺을 대신하여 曲尺이 모든 尺度의 基準이 된 점이다.

당시 日本에서는 鯨尺과 曲尺을 並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鯨尺은 17C 後半부터 사용하였던 和服裁縫專用의 자(尺)로써 고래의 수염에서 만들

27) 유형원(1969), 增補「磻溪隨錄」全 서울 : 景仁文化社, p. 224.
28) 李肯翊(1967), p. 333 ; 李定求(1926),「四千年文獻通考」度量衡(京城 : 東明社), p. 100.
29)「朝鮮舊社會事情」(1929), p. 199
30)「萬機要覽」, 군정편(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p. 291.
31)「四禮便覽」卷之五, p. 92.
32)「朝鮮舊社會事情」(1929), p. 201.
33)「高宗時代史」卷5(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72), pp. 623~624.

어졌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34] 이는 曲尺에 準하여 1尺 2寸 5分 즉 38cm가 되며(圖 7) 日帝時代에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한 흔적이 있다.



〈圖 7〉 鯨尺의 1寸길이(服裝大百科事典, 下卷)

그후 隆熙 3年(1909年) 度量衡法을 制定하여 光武 6年의 度量衡法을 폐지시키고 名稱·命位 및 種類를 日本과 同一하게 했는데, 光武 6年 政府에서 판매한 度量衡器는 布帛尺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다[35]하여 布帛尺만을 禁止시켰다.

現在 창덕궁 陳列室에는 몇 종의 尸曹尺度가 있는데, 그 一面에 새겨진 布帛尺의 길이는 48.91 cm이며, 또 다른 鍮尺의 三面에 "布帛尺○紙苧竹氈皮物金絲樺皮繩索"이라 記銘되어 있어 그 用途를 나타내고 있으며, 5寸의 實長 24.62cm에 寸과 分의 눈금이 刻하여져 1尺의 길이가 49.24cm 됨을 알 수 있다. 다른 所藏品 중 6個의 紅色 華角尺은 길이가 52.3cm로 光武 6年의 布帛尺 1尺은 48.48cm가 된다는 기록과 차이가 난다.

당시 度制의 紊亂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布帛尺과 針尺이 명백히 구분되어 사용된 점인데 그 例로는, 朝鮮社會考에 "朝鮮末에는 布帛尺이 布木商店用으로 여러 종류가 있었다. 1尺은 曲尺의 1尺 4寸 6分(44.2cm), 1尺 6寸 1分(48.8cm) 등 尺마다 차이가 있었고, 針尺은 家庭에서 사용되는 私尺으로 전혀 公用의 것이 아니며 길이는 曲尺의 1尺 6寸 6分(50.3cm)에 해당되어 布帛尺보다는 5分이 길었으며 이 당시 布帛 1匹이란 이 針尺 40尺을 두고 이르는 것이었다."[36]고 하였고 朝鮮舊社會事情에 보면, "布帛尺은 布木에 사용되는 尺인데 曲尺으로 1尺 6寸 1分에 해당되며 朝鮮의 1匹은 布帛尺 50尺을 말한다. 針尺은 裁縫에 사용되는 尺으로, 鯨尺과 같으면서 曲尺 1尺 6寸 6分과 同一하다. 이 尺은 家庭用으로 私尺에 지나지 않는다."라고[37] 하여 布帛尺과 針尺과는 10자(尺) 정도 길이가 달랐다.

尺度綜考에는 "日帝時代 布帛尺은 비단을 재는데 쓰는 短尺이 51.27cm이고, 무명用의 長尺이 58cm로 그 差異가 甚했으며……"[38]라 하여 자(尺)의 用途에 따라서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926年 朝鮮度量衡令을 公布, 미터법(1cm=3分 3釐, 1m=3尺 3寸)으로 專用하여 50cm, 1m의 자를 現在까지 使用케 되었다.

文獻에 나타난 時代別 布帛尺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表 4 참조〉

〈表 4〉 朝鮮時代의 布帛尺度

	世宗12年 五禮尺度	世宗13年 田制詳定所尺度	經國大典 記錄尺度	英祖26年 改尺度	純祖20年 厘正周尺時尺度	光武 6年 改尺度	창덕궁陳列室朝鮮時代末尸曹尺度	창덕궁陳列室銅四角柱尺度
布帛尺 길이(cm)	44.75	46.73	46.80	46.80	46.80	48.48	48.91	49.24

34) 「暮しの圖鑑」 Ⅲ(東京 : 主婦と生活社 1969), pp. 84~85.

35) 「승정원 일기」 隆熙 3年 9月 20日記(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76), p. 27.
「일성록」 隆熙 3年 9月 20日(서울 : 서울大古典刊行會 1974) ; 「순종실록」 隆熙 3年 9月 20日 卷3 32張.

36) 「朝鮮社會考」(京城 :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 1912), p. 30.

37) 「朝鮮舊社會事情」(1929), p. 203.

38) 藤田元春(1929), 「尺度綜考」 東京 : 刀江書院, p. 54.

V. 遺物의 種類 및 文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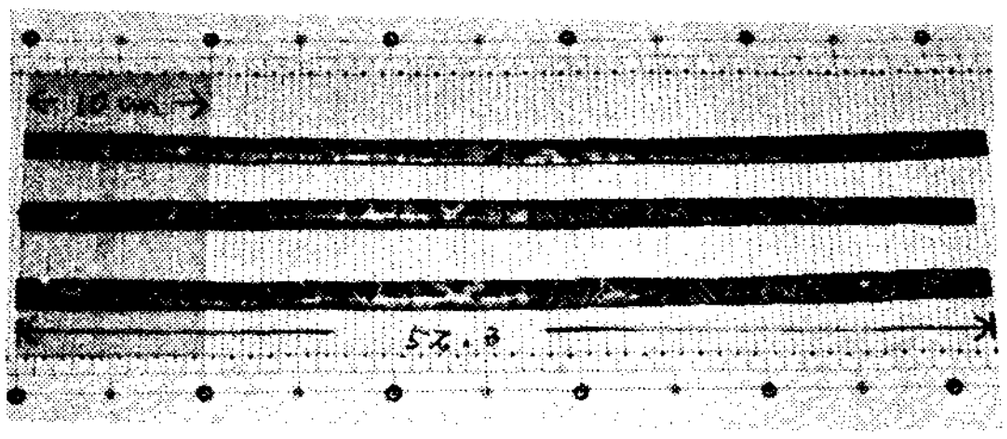
창덕궁, 民俗博物館, 大學博物館, 骨董品商 등에서 조사한 遺物의 數는 華角尺 18점, 漆尺 15점, 竹尺 31점, 木製尺 53점 등 總 117점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私的으로 製作되어 傳承되었기 때문에 길이가 각기 달랐으며, 자(尺)의 表面에 製作年代, 製作者 등의 표시가 없어 文獻과의 관련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材料와 技工의 性格에 따라 華角尺, 螺鈿黑漆尺, 黑漆尺, 朱漆尺, 竹尺, 木製尺으로 분류했고, 用途에 따라 麻를 재는 자, 버선자, 壽衣를 재는 자, 曲線을 재는 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자(尺)에 새겨진 칫수의 표시방법은 十進法에 準據하여 在來尺의 規格인 10分, 10寸, 1尺에 따르고 있었으며, 눈금의 간격은 부정확하였다.

1. 華角尺

華角尺(圖 8)은 여러 종류의 針尺 중 가장 華麗하여 針線道具로서의 기능 외에 婦女子들의 內房工藝品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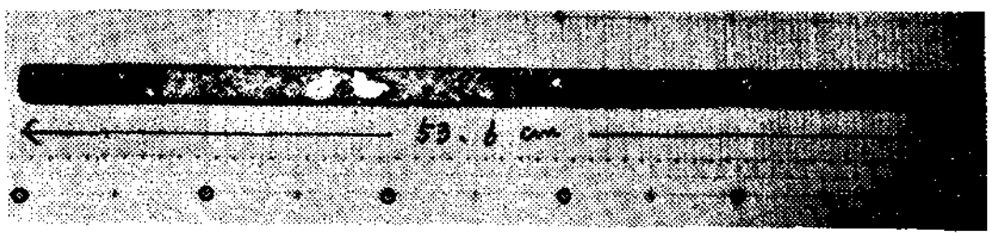
〈圖 8〉 (창경궁 소장)

實測한 18점의 華角尺 대부분은 19세기 것으로 추측되며 文様, 色彩, 칫수 등이 매우 다양했다.

2. 螺鈿黑漆尺, 黑漆尺, 朱漆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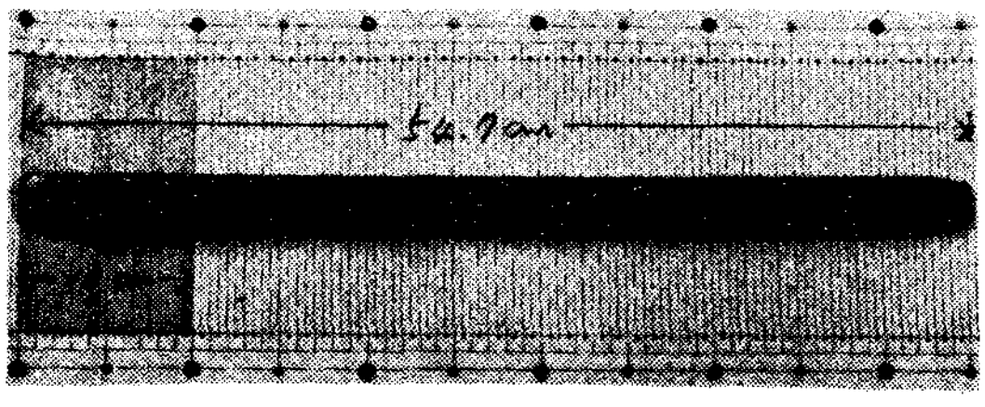
螺鈿漆具들은 三國時代부터 遺品이 있으며, 漆의 종류에는 黑漆, 朱漆, 黃漆, 生漆 등이 있으나 針尺은 黑漆이 가장 많았다.

針尺은 다른 螺鈿漆具에 비해 조촐한 맛과 성긴 맛을 내는 듯 했으나, 黑漆바탕 위 자개의 色相이 文様과 조화되어 玲瓏해 보였다(圖 9).



〈圖 9〉 螺鈿黑漆尺(경희대 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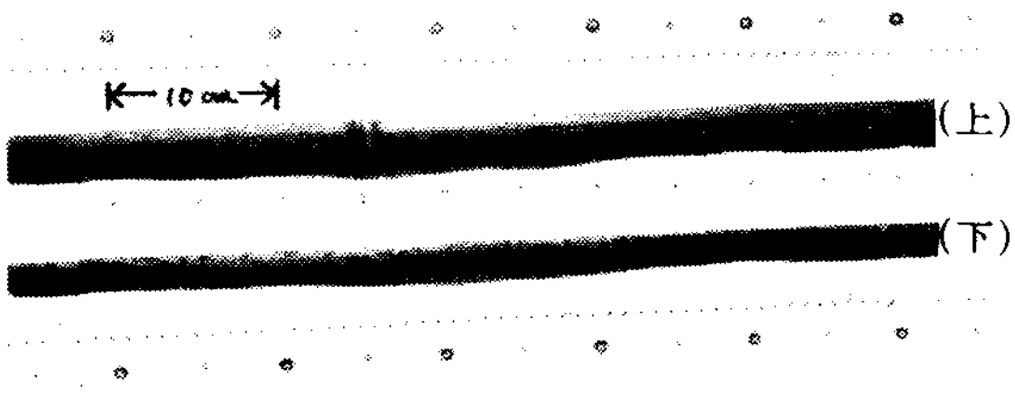
특이한 것은 붉은색의 朱漆尺(圖10)이었는데 자개 文様은 없었으나 色相이 매우 아름다웠다.



〈圖 10〉 朱漆尺(韓國民藝館 소장)

3. 竹 尺

竹尺은 文様이 없고 매우 간소하여 測定道具로서의 實用性만을 추구한 것과(圖 11의 上)과 精巧한 文様을 裝飾하여 工藝品化한 것(圖 11의 下) 2종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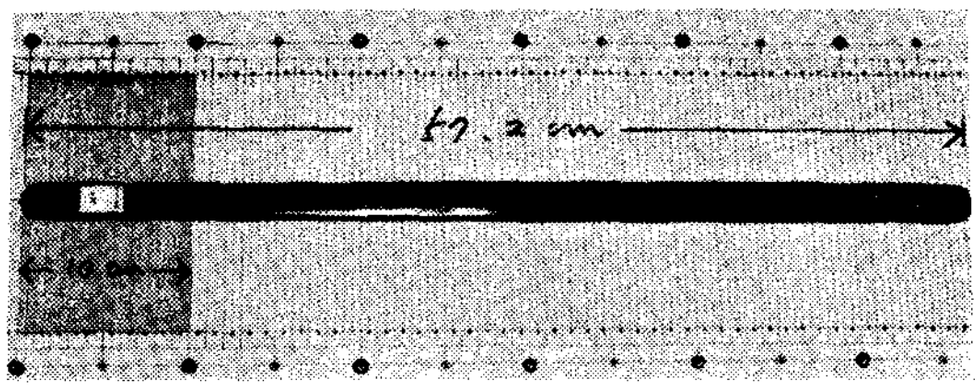
〈圖 11〉 竹尺(경고당 소장)

〈圖 12〉 壽衣尺(온양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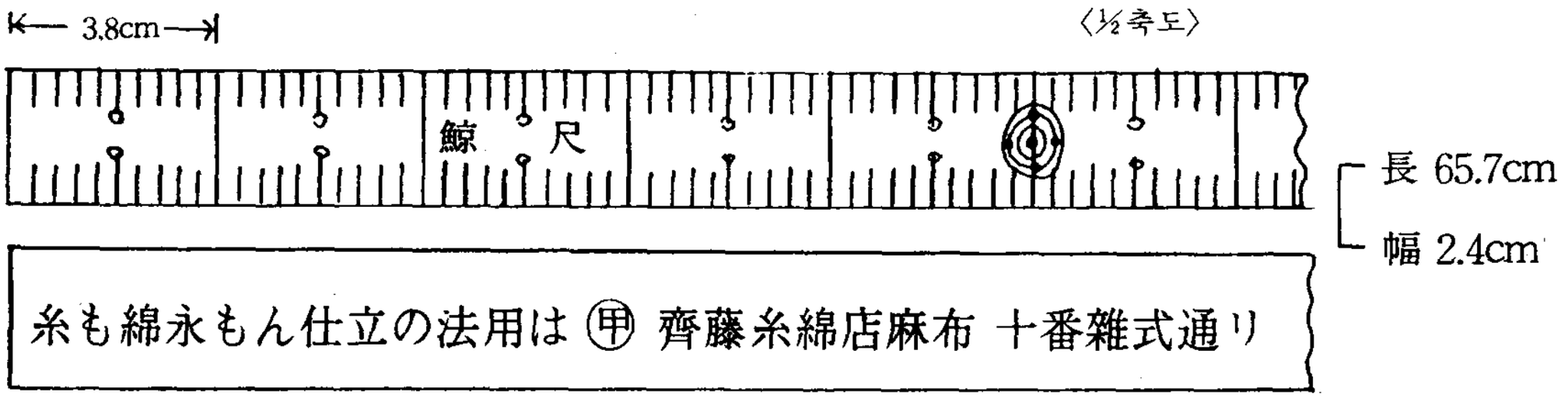
길이는 長短의 차이가 심해서 日帝時代 것으로 생각되는 鯨尺은 78.5cm였고 온양박물관 所藏品인 壽衣尺은 31.7cm였다(圖 12).

竹製는 자(尺)의 後面에 施文을 할 수 없으므로 前面만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竹尺 2개를 맞붙여서 前後 구별없이 만든 것도 있었다(圖 13).

한편 단국대博物館에는 日帝時代 때 商業用 布帛尺으로 사용되었던 鯨尺이 있는데 1寸의 눈금間隔이 3.8cm로써 기록과 일치하며, 자(尺)의 前面에는 "鯨尺"이라 새겨져 있고, 後面에는 烙竹으로 "糸セ綿永セん仕立の法用は㊙齊藤糸綿店 麻布十番雜式通リ"라고 쓰여 있다(圖 14).



〈圖 13〉 竹尺(성신사대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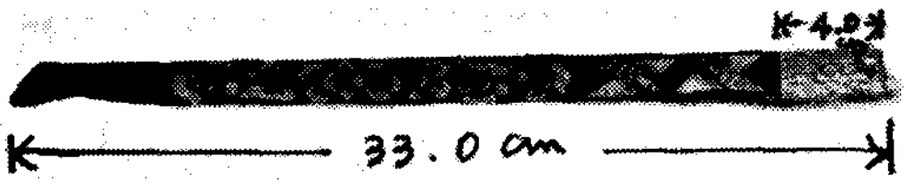


〈圖 14〉 鯨尺

4. 木製尺

木製尺은 각자의 기호와 기술에 따라 세련도가 높은 것, 裝飾이 없고 간소한 것, 거칠고 투박한 것 등 種類와 形態가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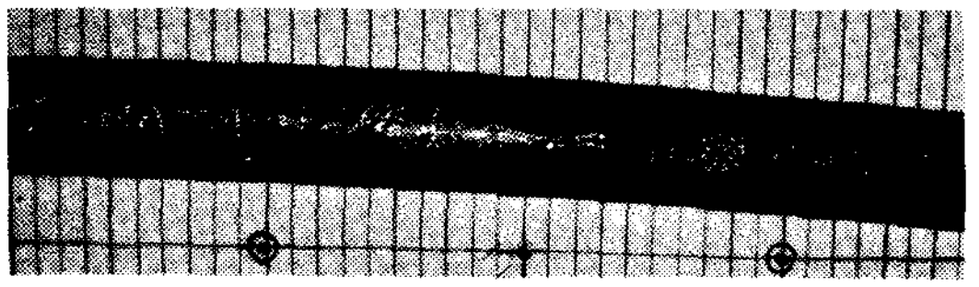
길이는 時代, 用途에 따라 차이가 심했는데 버선자는 30~34cm였고(圖 15), 針尺은 50cm~61.5c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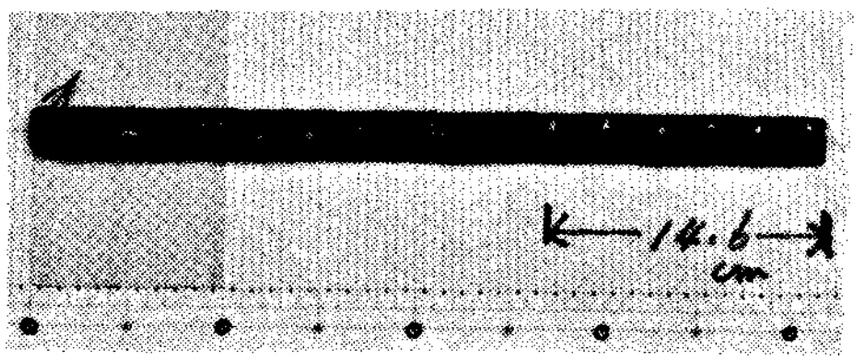
〈圖 15〉 버선자(高大 博物館 소장)

단면은 楕圓形이 많았고, 눈금의 표시방법은 작은 못을 박은 것(圖 16), 홈을 파서 금을 새긴 것, 자개눈금을 박은 것(圖 17), 精巧한 陽刻文様으로써 눈금을 표시한 것(圖 18)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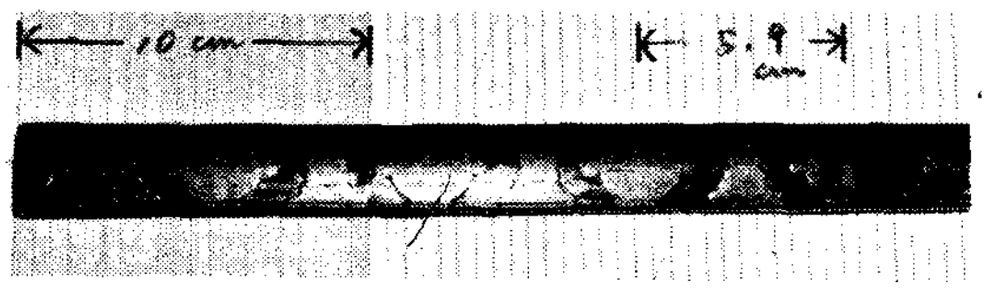
특이한 것은 자(尺)가 약간 휘어진 것이 있었는데 衣服의 曲線部分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圖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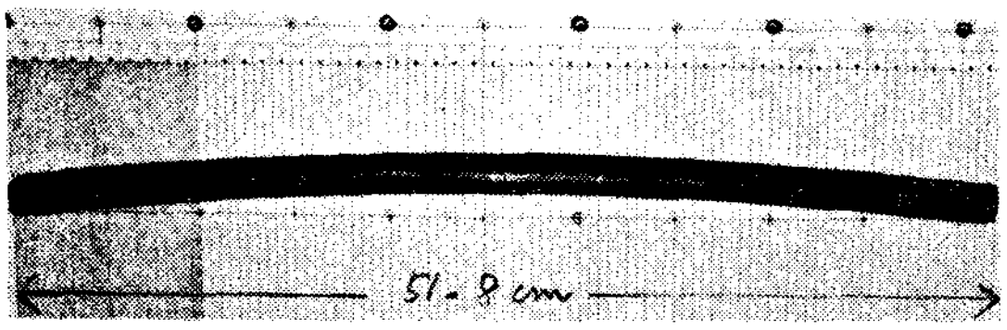
〈圖 16〉 木製尺(허동화氏 소장)



〈圖 17〉 木製尺(同和堂 소장)



〈圖 18〉 木製尺(성신사대 소장)



〈圖 19〉 木製尺(허동화氏 소장)

Ⅵ. 結　　言

布帛尺에 관한 기록은 朝鮮 世宗 13年에 처음 보이며, 世宗 7年에 度量衡의 原器인 黃鍾尺이, 12年에는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들이, 13年에는 布帛尺이 校正 新制되었다.

이때 布帛尺의 길이는 五禮儀에는 44.75cm로, 田制詳定所 遵守册에는 46.33cm로 기록되었다. 經國大典 工典에는 46.80cm로 田制詳定所 布帛尺과 비슷하다.

宣祖代 이후 兵亂으로 度制는 紊亂해져 49.16cm로 길어진 것도 있다.

英祖 26年 布帛尺의 길이는 다시 46.80cm로 考正되었다. 그러나 地方에서는 계속 불확실한 尺度를 사용하므로 正祖 元年 尺度의 統一을 宣布하였다.

國朝五禮儀(成宗代)와 大韓禮典(高宗代)의 布帛尺 길이가 같은 점으로 보아 採擇한 布帛尺의 길이는 46.80cm였다.

開化期를 前後해서는 布帛尺의 길이가 다양하였다. 따라서 光武 6年 平式院에서 度量衡法을 改正, 布帛尺은 曲尺(30.3cm)에 準하여 48.48cm가 되었다.

1926年 미터법이 導入되어 現在와 같은 자(尺)를 사용하기까지 布帛尺은 地方과 時代와 用途에 따라서 길이가 각기 다르고 1尺 내에서 조차 寸과 分이 부정확한 것이 많았다.

參 考 文 獻

「高麗史」, 卷32食貨志

國立中央博物館(編)(1978), 「國立中央博物館」, 서울 : 通川文化社.

國史編纂委員會, (1969), 「승정원 일기」

(1972), 「高宗時代史」, 서울 : 探求堂

(1973), 「朝鮮王朝實錄」, 서울 : 探求堂

「동아일보」, 1920. 4. 20, p. 2

「大韓禮典」 卷 4.

民族文化추진회(編), 「萬機要覽」, 재용편 · 군정편.

朴齊家(1971), 「北學義」, 李翼成(譯), 서울 : 乙酉文化社.

朴興秀(1967), "李朝 尺度에 관한 연구," 「大同文化研究」 第4輯, 서울 : 成大史學研究所 ; (1967), "周 · 秦 · 漢時代의 中國 量制와 量尺에 관하여," 「閔泰植박사 古稀紀念 儒教學 논총」. ; (1977), "新羅 및 高麗 때의 量制度와 量尺에 관하여," 「科學기술연구」, 서울 : 成大부설과학기술연구소.

法制處(編) (1963), 「大典通編」, 서울 : 法制處

(1964), 「受教輯錄」, 서울 : 法制處

(1965), 「續大典」.

(1965), 「大典後續錄」.

(1972), 「典錄通考」, 下卷.

(1973), 「六典條例」.

(1875), 「大典續錄」.

서울大古典刊行會(編) (1974), 「일성록」.

徐有榘 「林園十六志」, 膽用志, 卷四 度量衡之具條.

柳子厚(1940), 「朝鮮 貨幣考」, 京城 : 學藝社.

유형원(1958), 國譯 「磻溪隨錄」 田制篇, 서울 : 東國文化社 ; (1969), 增補 「磻溪隨錄 」 全, 서울 : 景仁文化社.

尹張燮(1975), "韓國의 營造尺度" 「韓國建築學會誌」 19卷 63號.

李圭景(1959), 「五州衍文長箋散稿」, 서울 : 東國文化社.

李圭泰(1973), 「開化百景」 Ⅱ, 서울 : 新太陽社.

李肯翊(1967), 「燃藜室記述」, 서울 : 景仁文化社.

李瀷(1915), 「星湖僿說類選」, 京城 : 文光書林.

李定求(1926), 「四千年 文獻通考」 京城 : 東明社.

趙斗淳 等 受命(編)(1939), 「大典會通」, 京城 :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駐劄憲兵隊司令部(編)(1912), 「朝鮮社會考」.

朝鮮總督府 中樞院(編)(1939), 「李朝實錄風俗關係

資料攬要」
(1944),「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攬要」
(1929),「朝鮮舊社會事情」
(1929),「新興의 朝鮮」
(1930),「朝鮮民族史」.
增補文獻備考(1957), 서울：東國文化社.
崔恒 等 受命(編)(1934),「經國大典」, 京城：朝鮮總督府 中樞院.
「筆苑雜記」 卷之二.
藤田元春(1929),「尺度綜考」, 東京：刀江書院.
望月長興(1944),「日本人の尺度」.
「暮しの圖鑑」 3衣(1969), 東京：主婦と生活社.
「法隆寺獻納寶物圖錄」(1957), 東京：國立博物館.
「服裝大百科事典」 下卷(1969), 東京：文化出版局.

「世界美術全集」 八卷(1928), 東京：平凡社.
藪田嘉一部(編)(1969),「中國古尺集說」 東京：綜藝舍.
「李朝工藝」(1977), 東京：講談社.
「正倉院展の歷史」(1977), 東都；奈良國立博物館.
「現代ホーム百科事典」 4卷(1966), 東京：學習研究社.
羅振玉(1976),「權衡度量實驗考」, 대만：有限公司.
楊寬,「中國歷代 尺度考」.
吳洛(1976),「中國度量衡史」, 대만：商務印書館.
王國維(1969),"宋三司 布帛尺 模本跋"「中國古尺集說」, 東京：綜藝舍.

ABSTRACT

ABOUT POBAEK-CHEOK IN THE TIME OF THE YI-DYNASTY

Lee, Eun Kyung

We suppose that Poback-cheok appeared with wearing clothes in the ancient times. At first, man used body as a scale, and it is gradually diversified with social development.

It is clear that also in the time of Shilla-Dynasty, the United Shilla-Dynasty and the Goryeo-Dynasty, the system of degree existed in historical relation to that of China.

But we don't know it's real length, because there is no recording until the beginning of the Yi-Dynasty.

The first recording about Poback-cheok appeared in the time of the King Sejong · Hwangjong-Cheok which is a original vessel of the degree system appears in the 7th years of the King Sejong. In the 12th years of the King Sejong, Ju-cheok, Youngjo-cheok and Joyegi-cheok appeared. In the 13th years of the King Sejong, Poback-cheok appeared as a new changed one.

At that time, the length of Poback-cheok is recorded as 44.75㎝ in chapter of Oye and Jonsoo Pobaek-cheok is recorded as 46.73㎝ in Jeonjesangjeongso's picture, and it is recorded as 46.80㎝ in the Kyunggugdaijeon.

The scale system is put in good order in the time of King Sejong. But it is confused by the war of 1636 after King Seonjo period. In the 26 th year of King Youngjo, it is reappeared as one of the King Sejong, and it is fixed as 46.80㎝.

The length is used until the proclamation in the 6th years of the Kwangmu(1902), and then the length of Pobaek-cheok is changed as 48.48 ㎝, that is measured by a Gok-cheok.

After that time, the scale system is very confused during the introduction of new civilization and the Korean-Japanes Unit. So it is used longer or shorter(that is, 49.24㎝ or 48.91㎝). And the metric system is introduced by Japanes in 1926 , and it reached the present time.

According to use, the actual thing with is used in the end of the Yi-Dynasty is various from 30 ㎝ to 70㎝. And according to material and craftman, it can be devided into Hwa-gag scale, Najeon-blacklacquer-scale, bamboo-scale, wooden-scale. The way of expression of measure is always followed by the decimal system. The other half part, except the part of expression of grad-

uation, is put on decorate with a pattern. Also we can see the idea of living on this point.